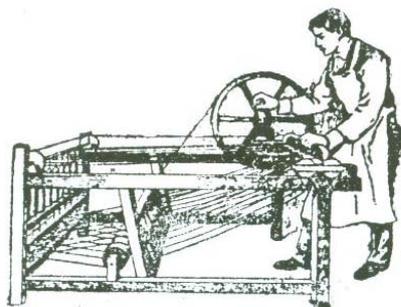


## 실 방적의 유래

사냥과 채집은 신석기 시대에 시작되었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풀, 린넨, 양모를 실로 만드는 방법들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7000년 전 실을 만들기 위해 스피ن들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오랫동안 수작업으로 방적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양모가 많이 사용되었다. 일본에서는 약 3000년 전인 조몽(Jomon) 시대의 유적지에서 실로 제작된 원단이 발견되었다.

현재의 섬유산업과 같이 기계를 이용한 실의 대량 생산은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때 시작되었다. 1733년에 John Wyatt는 롤러 정방기를 개발하여 기계로만 방적을 시작하였고, 1764년에 James Hargreaves는 Jenny 정방기를 개발하여 생산방법을 수작업에서 기계식으로 변화시켜서, 여러가닥의 실을 동시에 방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768년에 Richard Arkwright는 수력 구동식 정방기를 개발하여 방적공장을 설립하였다. 기계 구동식의 정방방식으로 인해 영국에서 섬유산업은 크게 성장하였고, 이러한 기술들은 전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하였다.



<그림 1> Jenny 정방기

일본 최초의 기계 구동식 방식의 카고시마 방적공장은 1867년에 설립되었으며, 그때부터 일본의 방적산업은 성장하고 크게 번창하였다. 현재 일본의 방적산업은 기술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요 기업들은 비용 문제로 인해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고 있다.